

기록관리 기관평가 평가지표 개선반 전체·분과 회의 결과

기록관리 기관평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운영된 '평가지표 개선반'의 제1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I 개요

- (일시/장소) '19.8.6.(수) 10:30~16:30 / 국가기록원 본원 제1회의실 등
- (참석자) 기관평가 평가지표 개선반 31명(현장·외부·내부전문가 등)
- (주요내용) 제1차 전체회의 및 기관 유형별 분과회의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40	10'	· 환영인사	연구협력과장
10:40~10:50	10'	· 개선반 소개	
10:50~11:30	40'	· 기록관리 기관평가 지표개선반 운영 계획 안내	
11:30~12:30	60'	· 지표개선반 운영 방식 및 지표개선 방향 논의	
		< 오찬 >	
13:20~16:30	190'	· 기관 유형별 분과회의 - 분과별 대표 및 업무 분장 - 분과별 운영방식 및 향후 추진내용 논의 - 분과별 필수 평가지표 도출 등	

II 전체회의의 결과

□ 주요 설명내용

- 기록관리 기관평가 '평가지표 개선반' 구성·운영계획 안내
 - 추진배경, 추진경과, 구성·운영방안, 주요 검토사항, 향후 추진계획
-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방안 안내
 - 추진경과,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의견조회 결과, 평가 개선방안
- 2019년 기록관리 기관평가 추진현황 안내

□ 주요 논의사항

《 개선반 회의 운영방식 및 일정 관련 》

- 평가지표 개선회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현장전문가)
 - ⇒ 기관 유형별 분과에서 작업한 결과(평가지표, 평가 구성안)에 대하여 기록관리 평가라는 전체 관점에서 균형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수행(기록원)
- 기관유형 전체를 대표한다는 책임이 큰 부담으로 다가옴(현장전문가)
 - ⇒ 각 기관의 연구사님은 현장전문가로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본인의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주시면 됨(기록원)
 - ⇒ 평가지표 개선반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등은 참여하신분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기록원)
- 개선반 회의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함. 다만, 자유로운 회의 진행 및 충실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현장전문가)
- 분과회의는 유형별로 최대한 평가지표개선(안)을 도출해 내주시는 것이며, 조정회의에서는 제시된 (안)을 조정하여 선정하는 것임. 조정회의 안을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고 확정하며, 이후 각 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최대한 의견을 내주시면 되는 것임(기록원)
- 기관평가 정성평가단에 참여하여 기관 제출실적을 별도의 설명 없이 작성된 자료로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기록원에서 충실히 전달한다고 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음(외부전문가)
 - ⇒ 현장전문가 대표의 지표개선 조정회의 참석 관련은 오후 기관 유형별 분과회의에서 더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함(기록원)
- 2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어느 정도까지 지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됨. 지표가 매우 많은데 각 기관유형별 특성에 따른 균형을 맞추고 피드백까지 받는다는 것이 일정이 매우 빠듯해 보임. 이런 일정 속에서 결론을 도출하였을 때 잘못하면 지표개선반에 참석한 분들이 국가기록원이 가고자 하는 길에 들러리 역할밖에 못하게 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현장전문가)

- ⇒ 평가계획을 전전년 12월에 기관에 통보하기 위해서 기관설명회 및 의견수렴 절차,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이후 일정을 고려할 때 개선반의 평가지표 작업이 10월중에는 완료되어야 할 것 같아 짧은 기간으로 일정을 잡을 수 밖에 없었음. 필요하다고 하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니, 일정에 대한 대안을 주시면 고려해 보겠음(기록원)
- ⇒ 또한 기록원에서 기록관리 현장의 소리를 충실히 듣고 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표개선반을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기록원의 입장만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임(기록원)
- 일단 스케줄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시작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하고 가는 것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국가기록원 측에서도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했을 테니 그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하다가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현장전문가)

(운영 일정) 국가기록원에서 제안한 일정대로 추진하되, 업무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등 탄력적으로 운영

(운영 방식) 작업반 성격의 분과회의 이후, 조정회의 성격의 개선 회의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동의, 다만 조정회의에 현장전문가가 분과별 대표로 참여하는 것은 분과별로 재논의하여 결정

《 평가지표 개선 관련 》

- 평가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기관 유형별로 기록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루어야 할 평가지표가 무엇인지 먼저 도출하고, 이후 평가지표 개수 및 각 지표별 배점 등 평가 구성안을 마련하는 순으로 진행했으면 함(기록원)
- 공통지표, 선택지표 등을 구분하지 말고, 지표의 개수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별로 평가받을 지표를 목록화하고, 이후에 공통과 선택지표를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기록원)
- 기관 유형별로 특성이 다르긴 하지만 그 유형 내에서도 연구사가 배치된 지 15년이 지난 기관도 있고, 막 배치되어 점수를 받지 못하는 기관도 있음. 이와 같은 격차를 좁히기 위하여 지표가 다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평가를 유예하기보다 해당 등급에 맞는 지표를 구성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현장전문가)
- ⇒ 수준별 평가방식이 개선안으로 포함되어 제안되었지만, 기관 의견수렴 결과, '현행방식 유지'가 다수결로 결정된 상태임.

평가지표 개선 시, 지표별로 수준별로 달리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측정기준·산식으로 반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기록원)

- 개선된 평가지표는 향후 변동이 없는 것인지(현장전문가)
 - ⇒ 향후 평가는 격년 주기로 평가될 예정이며, 3회 평가, 즉 6년은 유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함(기록원)
- 12월에 지표개선을 하면 20년에 지표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고, 21년에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 사이에 많은 기록관리 현장에서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지표가 확정된다는 부분이 위험할 것 같아 보임(현장전문가)
 - ⇒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지표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부분은 지표를 개선하면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지표 개선(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함(기록원)
- 기관평가 무용론의 의견이 많고, 이참에 기관평가를 폐지해 달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음. 이 평가로 인해서 개선이 이루어진 기관도 있겠지만 미흡한 기관들은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기관장 등으로부터 질책받는 도구로 이용되어 사기가 저하됨(현장전문가)

지자체는 정부합동평가라는 이유로 1~3개 지표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기관평가의 평가대상기관들은 20개 이상의 지표를 평가 받고 있음.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면 지표를 대폭 감축하여 핵심적인 지표 위주로 구성하고 각 기관 연구사들이 업무의 자율성을 갖고 탄력적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함(현장전문가)

-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는 분야별로 지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수가 적은 것임. 지자체의 경우에도 별도의 개별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기록원)

-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기록관리 업무의 위상을 높여주고, 조직부서에서 연구사 채용이 안 되었을 때 경고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가 구성되어야 함(현장전문가)

국정원에서 보안평가 지표를 보았을 때 보안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위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보안업무 담당자는 특정업무 수당을 주는 근거로 이용하는 등 개선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아보였음(현장전문가)

- 평가를 강화하면서 후속조치를 생각하고 있는데 법적 의무 불이행 시 감사에 준하는 실태점검을 하고, 일상적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올해부터 미흡하겠지만 실태점검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음(기록원)
 - ⇒ 이번 기록관리 실태점검 시 신규 배치받은 연구사에게 배치 이전의 기관 기록관리 미흡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현장전문가)
 - ⇒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기록원)
 - ⇒ 제 경우는 과거 실태점검 시 기록원에서 신규 배치받은 제가 아니라 당시 근무했던 일반직 선생님에게서 확인서를 받았음. 다만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약해 기록관리 개선 효과가 적어 아쉬웠음(현장전문가)
 - ⇒ 올해 평가지표를 개선하면서 바뀐 부분은 확실하게 피드백할 것이며, 연구사들이 무고하게 피해가 가지 않고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임(기록원)
- 지표 개선작업 방향이나 평가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분과별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음(기록원)

(작업 방식) 우선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이후 기관 유형별 평가 구성안(지표 개수, 지표별 배점 등)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

(지표개선 방향) 분과별로 신규/유지/수정/제외 지표 등을 검토·도출한 후 조정하고 수준별로 적용되어야 할 지표의 경우 측정기준을 통하여 반영

※ 시행령 개정 등 이후 변경될 기록관리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표 개발

《 기타 》

- 평가관리단은 어떤 것인지?(현장전문가)
 - ⇒ 2021년 기록관리 평가시 국가기록원 실적 검증 등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전문가 등 내·외부전문가로 평가관리단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지표개선 이후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임(기록원)
 - ⇒ 효율적인 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중점추진사례 등 정성지표와 평가 시 이의신청 등 쟁점사항에 대하여 운영할 계획임(기록원)
- 공공기관 평가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함(현장전문가)
 - ⇒ 공공기관 평가대상 확장 부분은 계속 논의가 되어왔지만 기록관리 기관평가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견이 대립되어 향후 기록관리 정책·제도개선이나 업무개선 검토 시 함께 논의하겠음(기록원)

① 제1분과 : 중앙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회의

□ 개요

- (일시/장소) '19. 8. 6.(화) 13:20 ~ 16:30/대전 스마트워크센터
- (참석) 중앙·특행 현장전문가 5명, 국가기록원 업무담당 2명
- (내용) 분과 대표 및 운영방식 협의, 분과별 평가지표 논의
 - ① 분과별 대표 및 업무분장
 - ② 분과별 운영방식 및 향후 추진내용 협의
 - ③ 분과별 기록관리 평가지표 논의

□ 주요 내용

《 분과 대표 및 업무 분장 》

- 분과 대표는 분과 회의를 운영하고, 개선반 조정 회의에 참여하여 기관유형별 입장을 설명하고 전체 유형별 지표에 대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분과회의에서 논의하고 작업한 결과는 기록원 업무당자가 정리·작성, 작성 초안은 구성원 검토 이후 혁신게시판 등에 공개

《 분과별 운영방식 및 향후 추진계획 》

- 지표개선 작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표도출과 평가지표 구성안 마련 시 각각 1회 대면회의 진행, 그 외 소통은 메일 등 온라인 방식 활용
 - 회의 일정은 8월말, 9월말 예상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하고 확정
- 우선 지표(유지/추가/제외/수정지표)를 도출하고, 지표별 측정방법·기준, 세부제출실적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적으로 검토·작성하여 메일로 전달, 기록원에서 취합·정리하고 8월말경 대면회의

《 중앙·특별행정기관 기관평가 지표 관련 논의 》

- 지표 도출의 효율성을 위하여 '08년~'19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유지, 추가, 제외, 수정이 필요한 평가지표 논의
 - (유지/수정 지표)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록관리 관련 규정

제·개정, 전문요원 채용, 업무분장의 적절성, 기록관리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교육, 직원 기록관리 교육, 처리과 지도·감독, 장비기준 준수, 서고면적 기준 준수, 열람실 설치, 분류기준(체계) 관리의 적절성, 생산의무 기록물(회의록, 시청각, 조사연구검토서 등) 관리, 생산현황 보고, 처리과→기록관 이관, 기록관→기록원 이관, RMS 전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변환여부, 재난대책,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정수정검,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 (추가 지표) 기록관리 관련 예산 확보, 기관장 기록관리 교육(현장), 기관장 지시 및 보고(가점지표), 향온향습기 등 장비 내용연수(내구연한), 연구(정책)보고서 작성 실적
- (제외 지표) 정보목록 공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공공기록 편찬 및 전시 등 기록정보서비스 확대,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변환

《 기타 》

- 기록관리 평가 목적과 평가지표개선반 운영 목표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 평가는 수준/현황을 진단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기록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또한 이번 평가지표 개선도 평가대상 기관이 100점을 받거나 상위 등급을 받도록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목표치를 기반으로 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함
- 현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체계는 기관 수준별 평가나 분야 차등 평가 등이 아닌 현행체계를 유지하는 것임
 - 평가 목표 등을 고려할 때, 평가지표를 잘 설계하여 수준 높은 기관이나 낮은 기관 모두 평가를 통해 ‘업무추진 동력’이 되었으면 함
 - 일부 지표에 대해서는 기록관의 규모(처리과, 기록물 수량 등), 업무의 난이도 등 정성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 작성 필요
- 일부 기관에서는 기록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기록관리 외 업무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음. 기관평가 결과의 후속조치(감사, 시정조치 요구 등)가 강력하지 않아 최하위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개의치 않음.
 -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실사, 실태점검 등이 필요하며, 강력한 후속조치 등이 필요함. 채용 목적을 벗어나 (인사)운용하는 것에 대한 인사 감사 등도 검토 필요

② 제2분과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회의

□ 개요

- (일시/장소) '19. 8. 6.(화) 13:20 ~ 16:30/5층 회의실(관리지원부)
- (참석)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현장전문가 6명, 국가기록원 업무담당 3명
- (내용) 분과 대표 및 운영방식 협의, 분과별 평가지표 논의
 - ① 분과별 대표 및 업무분장
 - ② 분과별 운영방식 및 향후 추진내용 협의
 - ③ 분과별 기록관리 평가지표 논의

□ 주요 내용

《 분과 대표 및 업무 분장 》

- 분과 대표는 분과 회의를 운영하고, 개선반 조정 회의에 참여하여 기관유형별 입장을 설명하고 전체 유형별 지표에 대한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분과회의에서 논의하고 작업한 결과는 기록원 업무당자가 정리·작성, 작성 초안은 구성원 검토 이후 혁신게시판 등에 공개

《 분과별 운영방식 및 향후 추진계획 》

- 지표개선 작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표도출과 평가지표 구성안 마련 시 각각 1회 대면회의 진행, 그 외 소통은 메일 등 온라인 방식 활용
 - 회의 일정은 8월22일(2차), 9월말(3차) 예상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하고 확정
- 조정회의에 분과별 대표가 참여하여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이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가 필요함
- 우선 지표(유지/추가/제외/수정지표)를 도출하고, 지표별 측정방법·기준, 세부제출실적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적으로 검토·작성하여 메일로 전달, 기록원에서 취합·정리하고 8월22일(2차) 대면회의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기관평가 지표 관련 논의 》

- 지표 도출의 효율성을 위하여 '08년~'19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유지, 추가, 제외, 수정이 필요한 평가지표 논의
 - (유지/수정 지표) 기록관리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교육, 직원 기록관리 교육,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도 및 업무개선 실적, 기록관리 지도·감독 및 후속조치 실시, 관할교육지원청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업무분장의 적절성, 시설·장비 구축 및 보존 환경 기준 준수, 학교 기록물관리 환경의 적절성, 회의록 관리의 적절성, 학교역사기록물 기획수집, 처리과 기록물 이관, 기록물 재난대책,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기록물 정수점검, 기록관리 조직 문화 개선, 기록관리 중점 추진 사례
 - (제외 지표)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서고면적 기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운영, 행정박물 관리, 조사·연구·검토서 관리, 처리과 기록물 이관 시 학교 제외, 전자기록물 포맷변환,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 기타 》

- 평가기준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를 격년주기로 하되 일부 지표는 평가기준을 2년 이내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했으면 함
- 평가지표는 유사항목을 통합·연계하여 세부기준을 재논의하고, 조정회의에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입장을 최대한 제시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의 등급을 통과/미통과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함
 - 대부분의 평가가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통과/미통과도 2개 구간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것과 같음
- 시도교육감 회의에 원장님이 참석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 관련 협의해 주셨으면 함

③ 제3분과 :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 회의

□ 개요

- (일시/장소) '19. 8. 6.(화) 13:10 ~ 16:30/제1회의실(403-1호)
- (참석)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 현장전문가 6명, 기록원 업무담당 2명
- (내용) 분과 대표 및 운영방식 협의, 분과별 평가지표 논의
 - ① 분과별 대표 및 업무분장
 - ② 분과별 운영방식 및 향후 추진내용 협의
 - ③ 분과별 기록관리 평가지표 논의

□ 주요 내용

《 분과 대표 및 업무 분장 》

- 분과 대표는 분과 회의를 운영하고, 개선반 조정 회의에 참여하여 기관유형별 입장을 설명하고 전체 유형별 지표에 대한 검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분과회의에서 논의하고 작업한 결과는 기록원 업무당자가 정리·작성, 작성 초안은 구성원 검토 이후 혁신게시판 등에 공개

《 분과별 운영방식 및 향후 추진계획 》

- 지표개선 작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표도출과 평가지표 구성안 마련 시 각각 1회 대면회의 진행, 그 외 소통은 메일 등 온라인 방식 활용
 - 회의 일정은 8월말, 9월말 예상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하고 확정
 - 지표개선 소통은 카카오톡 게시판 등 활용 제안
- 우선 지표(유지/추가/제외/수정지표)를 도출하고, 지표별 측정방법·기준, 세부제출실적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적으로 검토·작성하여 메일로 전달, 기록원에서 취합·정리하고 8월말경 대면회의

《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대학 기관평가 지표 관련 논의 》

- 기관평가는 평가점수가 아닌 지표별 가부(수행여부)로 평가하고 미수행시 기관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국가기록원이 평가의견서를 통보하는 방식 제안(지표별 자세한 코멘트뿐 만 아니라 큰 틀의 진단 필요)

- 기관별 평가결과에 대한 자세한 피드백 필요하며, 진단에 비중을 두고 피드백하면 좋을 것 같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개인과 더불어 기관에 대해서도 “상” 필요(예: 재정적 지원 등)
- 지표 도출의 효율성을 위하여 ‘18년~’19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유지, 추가, 제외, 수정이 필요한 평가지표 논의
 - 기관의 특성이 상이하야 정부산하공공기관과 대학을 구분하여 논의
 - (유지/수정 지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 기본계획, 전담조직 및 인력 배치 여부, 전문요원 채용 및 업무분장 적절성, 중요 기록물에 대한 정책 수립 여부, 기록물 분류체계 관리의 적절성, 직원 기록관리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 기록관리 업무관리자, 담당자 교육이수, 지도·감독, 기록물 정수점검, 기록물 재난대책 시행,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 준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중점추진사례(가점전환), 기록관리 조직문화 개선 노력, 처리과 전자기록물 관리(신설)

[국공립대학교] 시설·장비(서고면적 준수) 구축, 전담조직 및 인력배치, 전문요원 업무분장의 적절성, 기록관리 업무관리자, 담당자, 직원 교육이수, 지도·감독 및 후속조치, 회의록 관리, 대학역사 기록물 기획수집, 처리과 비전자기록물 이관, 기록물 정수점검, 기록물 재난대책 시행, 기록물 평가 및 폐기,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중점추진사례(가점전환)

- (제외 지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재난대책 시행, 비전자기록물 관리의 적절성,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국공립대학교]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비전자기록물 관리의 적절성

《 기타 》

- 평가지표가 법정업무이지만, 법정업무 대부분을 평가지표로 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음
- 기록관리부서에서 단독으로 하는 업무 및 평가가 아니라 기관 차원의 평가대응을 할 수 있는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기록관리기준표, 회의록 관리 등)

-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은 국가기록원에서 모든기관의 직급현황을 분석하여 적절한 직급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경우 다양한 직급 및 형태로 채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의 인식개선 및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록관리전문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평가지표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국정원의 보안관련 기관평가지 '정보보안 담당자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가'가 평가지표로 있음.
- 대학의 평가기준은 1월~12월이 맞지 않으며,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3월~다음해 2월로 평가기준의 조정이 필요함
- 기록관리 기관평가 결과의 대학평가 반영에 대한 고려 필요

IV

향후 계획

(행정사항)

- '19년 기록관리 평가지표개선반 전체회의 결과 보고 : 8월중
 - ※ 참석자 상시학습 5시간 통보
- (분과) 평가지표 도출 및 지표별 측정방법·기준 등 검토 작성 : ~9.6
- (개선반) 공통·개별지표 등 전체 평가지표 검토 조정 : 9월중(예정)
- (분과) 기관 유형별 평가지표 구성안 마련 : ~9월말(예정)
- (전체) 전체 기관유형별 평가지표(안) 검토 조정 : 10월초(예정)
- 2021년 기록관리 기관평가 지표(안) 마련 : 10월(예정)
 - ※ 기관 설명회 및 의견수렴(10월) → 최종 평가지표(안) 마련 및 정책전문위원회 심의(11월)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및 각 기관 통보(12월)

(후속조치)

- 평가지표개선반 회의 결과 기관 공유(우리 원 홈페이지 게시) : 8월중

구분	유형	소속	직급	성명	비고
개선반	외부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현문수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운영위원	황진현	
		알권리연구소	소장	전진한	
	내부	연구협력과	학예연구관	박지태	
		정책기획과	서기관	이젬마	
		지원정책과	학예연구관	박이준	
		지원기준과	기록연구관	전종호	
공공지원과		학예연구관	이아현		
기록정보기반과	공업연구관	이창영			
1분과	중앙	교육부	기록연구관	유재상	
		문화재청	기록연구사	송소현	
	특행	강원지방경찰청	기록연구사	최인정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기록연구사	주순덕	
		대전지방국세청	기록연구사	전호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연구사	한용현	
	내부	지원정책과	기록연구사	정수진	
		연구협력과	사서사무관	백승옥	
2분과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기록원	기록연구사	정상명	
		충청남도교육청	기록연구사	박민영	
	지원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방기록연구사	강민희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지방기록연구사	김남경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	박형호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	정현우	
	내부	공공지원과	학예연구관	김양희	
		연구협력과	보건연구사	김현탁	
3분과	공공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도윤지	
		한국국제협력단	4급(과장) (기록물관리전문요원)	한현진	
	대학	부경대학교	기록연구사	김연경	
		한국교원대학교	기록연구사	김희숙	
		경상대학교	기록연구사	이민희	
		한국해양대학교	기록연구사	손광락	
		목포해양대학교	기록연구사	권준현	
	내부	공공지원과	기록연구사	송헌규	
		연구협력과	보건연구사 (사서주사)	김현탁 (송혜현)	